

# 어두운 세상 새벽 깨우는 '태양의 새'

## 丁酉年

### 닭 이야기

2017년은 정유년(丁酉年)으로 '붉은 닭의 해'이다. 닭은 십이지(十二支) 중 열번째 동물로, 시작으로는 오후 5시에서 7시, 달(月)로는 음력 8월, 방향으로는 서(西)에 해당하는 방위신이자 시간신이다. 십이지에서 닭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명(黎明)을 알리는,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동물로 여겨져왔다. 천만축복이 염원하듯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해이기도 하다.

닭은 개·소와 더불어 우리 민족과 매우 친근한 동물이다. 우리 조상들은 닭 울음소리로 시각을 알았고 새날이 밝았음을 인지했다.

특히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서곡(序曲)으로 받아들여졌다. 밤에 횡행하던 귀신이나 요괴도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일시에 지상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민간에서는 믿고 있었다.

닭은 흔히 다섯 가지 덕(德)을 지녔다고 칭송된다. 닭의 벼슬(冠)은 문(文)을, 발톱은 무(武)를 나타내며, 적을 앞에 두고 용감히 싸우는 것은 용(勇)이고 징했다. 또 먹이를 보고 꼭꼭거려 무리를 부르는 것은 인(仁), 때를 맞추어 울어서 새벽을 알리는 신(信)이라 했다.

닭은 여명, 빛의 도래를 예고하기에 태양의 새이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지 능력이 있기도 하다. 장담이 휘를 길게 세 번 이상 치고 꼬리를 흔들면 산에서 내려왔던 맹수들이 되돌아가고, 짐귀들의 모습을 감춘다고 믿어왔다. 닭은 주역(周易)의 팔괘(八卦)에서 손(巽)에 해당하고, 손의 방위는 남동쪽으로, 여명(黎明)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래서 닭은 새벽을 알려주는 상서로운 동물, 신비로운 영물로 간주한다. 닭이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상에서 생활하는 존재상상의 이중성은 어둠과 밝음을 경계하는 새벽의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속신화나 건국신화에서 닭 울음소리는 천지개벽이나 국부(國父)의 탄생을 알리는 태초의 소리였다. 김일지 신화에서는 호공이 밤에 월성을 지나가다가 나무에 황금 껌이 걸려있고 그 밑에서 흰 닭이 울었다. 황금 껌 안에서 동자가 나왔는데 금궤에서 나왔다고 성을 김씨라 했다. 여기서 나라를 통치할 인물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흰 닭의 울음소리는 빛의 상징으로서, 자연 상태의 사회에서 국가적 체계를 갖춘 단계를 예고하는 존재이다.

역사 속 정유년 중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1597년 일어난 정유재란이다. 1592년 임진왜란에 이어 1597년 8월 도요토미 히



그림=강남구 ▲개인전 26회, 단체·초대전 500여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현 한국미협, 한국전업작가회 회원

닭 울음소리로 귀신·요괴 쫓아 ... 五德 지녀  
개·소와 더불어 우리민족과 매우 친근한 동물  
정유재란·대한제국 건립 등 역사적 사건 많아

데요시가 정전회담이 결정됨에 따라 재차 조선을 침공하며 1598년 연말까지 지속된 전쟁이다.

7월15일 수군통제사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칠천량에서 일본 수군과 해전을 벌여 전멸하다시피 한다. 조정은 항명으로 백의종군했던 이순신을 급히 불러

들여 통제사로 복귀시킨다. 이순신은 약한달 뒤(8월15일) 진도 울돌목(명량)에서 12척으로 일본군함 133척을 무너뜨리며 전세를 뒤집는다.

1897년은 대한제국이 세워진 해이다. 조선 고종은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을 계기로 조선 국왕을 황제로 격상시키는 시

도를 한다. 10월 12일 대한제국 선포하고 군주를 대군주로, 전하를 폐하고 높였으며 명령을 칙(勅)으로, 국왕 자신의 호칭을 짐으로 부르도록 했다. 대한제국은 1910년 8월22일 일제와 강제로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며 멸망한다. 같은해 11월20일 독립협회는 전국민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청나라 사신을 영접하던 영문은 자리에 독립문(사적 제32호)을 세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57년 10월4일 소련은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을 신설하는 등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 붐이 일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知天命의 丁酉年 운세

2017년은 신협한 붉은 닭이 장엄한 역사의 신새벽을 알리는 나팔수로서 사자후하고 있는 이세이다. 경제적으로는 신개념의 활로가 조성되어 해묵은 난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길로 이어지리라. 국제사회에서는 경제 불황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 공존의 가치가 거룩하게 빛나는 한해가 되리라.



- 36년생 작렬하는 태양처럼 의욕적인 발전을 하게 될 운로이니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 볼만 하다. 48.60.72년생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창의적 용지를 깨어나게 한다면 그 흥성이 하늘을 찌를듯 하리라. 84.96년생 개성이 다른 각각의 인격체들의 만남이니 만큼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본질을 그대로 살려 존중해야 길하다.
- 37.49년생 우기를 지나면서 불어난 강하에 뉘시를 드리우면 물 반, 고기 반이라 할만하니 실행하기만 한다면 복록이 무궁하리라. 61.73년생 양보와 타협 그리고 조화의 미덕을 쌓는다면 삼라만상이 도우리라. 85년생 일시적으로 격한 풍량이 일 것이나 이를 극복하고 나면 전도양양할 것이다.
- 38.50년생 교우하듯 사람을 가려 사귀면 지난날에 배풀었던 인덕과 쌓아 올렸던 공덕으로 인한 행운이 따른다. 62.74년생 방치한다면 폭포수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승승장구하리라. 86년생 현명한 이는 손조로울 때 역경을 생각하고 불운을 대비할 줄 아는 법이다.
- 39.51년생 태산과도 같이 무겁게 처신한다면 만 가지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 질것이니 한결을 한결을 정성을 다하라. 63.75년생 시종일관 신의를 중요시한다면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리라. 87년생 마음의 문만 연다면 세상사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 40.52년생 부담스러웠던 옛 것이 가고 생기발랄한 새것이 돌아오니 신선함으로 활기차게 될 것이로다. 64년생 목전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기왕 끝난 일에 미련을 버려야만 대사를 도모할 수 있다. 76.88년생 대강을 추스른 다음에 시의적절하게 지속한다면 필수하게 될 것이다.
- 41.54.65년생 푸른 초원에 바람이 스쳐지나기나 우마와 같은 가족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 형상으로써 목가적 평온함 속에서 부가 따르리라. 77년생 때마를 산비탈 바위틈에서 솟아난 한 줄기 샘물이라 하더라도 끊이지 않는다면 넘쳐흘러서 주위를 적시듯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국량이 아름답다. 89년생 마무리만 잘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 42년생 늦가을 서리외도 같은 일시적인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으나 이를 숙명으로 알고 의연히 대처한다면 배가 된 자생력으로 인해 커다란 진척을 가져온다. 54.66년생 목표에 거의 다 이르렀으니 조금만 더 다가서면 된다. 78.90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것이 옳다는 격언에 걸맞게 신중을 거듭하라.
- 43.55년생 황금빛 석양에 넘실대는 곡식의 물결을 바라보며 결실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판세라 할만하다. 67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적절한 감정절제가 가장 필요한 법이니 이에 능하다면 필히 성공하리라. 79.91년생 주어진 여건에 변수가 보이지만 유리한 쪽일 가능성이 크다.
- 44.80년생 수없이 많은 계단을 한 단계씩 오르내리고 있는 동세이니 세상만사라는 순서와 질서 그리고 체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절차와 차례대로 이행한다면 목적을 달성한다. 56.68년생 진실은 진실로써 통하는 법이니 소리에 따르면 부가적 이익이 상당하겠다. 92년생 삼복더위의 때마를 땅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기쁨이 보인다.
- 45.57.69년생 땅속에 묻힌 채 발굴되지 않은 쇠와 값있던 시절을 지나 발탁되거나 현저해지는 운로에 이른다. 81년생 사사로운 이익에 앞서 이타적이거나 공익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국공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93년생 가을 낙엽 후 다시 회춘하는 형상으로써 종기를 맞이하였던 것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운로이다.
- 46년생 비록 깊은 산의 소나무요, 망망대해의 일엽편주라 하더라도 반드시 귀인을 만날 것이니 어둠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불빛에 주목하라. 58.70년생 대지 위에 우뚝서 있는 거목처럼 추후함에서 비롯된 길조가 강하다. 82.94년생 달 속에 노니는 옥토끼와 같은 애뜻함 속의 신동함이 깃든다.
- 47.59년생 햇볕 뜨거운 여름날, 김매고 가지치기하며 애써 가꾼 노고가 있어 가을날의 곡식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이치이니라. 71년생 삶의 활력소가 될 만한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 83.95년생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부근 남동측 토지 864.8㎡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2백 ▶ 최저가 14억5천
- ★ [공장] 광주시 북구 일곡동 OB맥주 광주공장 부근 토지 1872.59㎡ 건물 1540.1㎡ 감정가 13억7천2백 ▶ 최저가 9억6천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7천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무인택회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토지 23,147㎡ 매매가 평당10만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중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8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내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황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